

# 오피니언

## 테마칼럼

### 건강과 생활

### 생 바로알기

### 호남 문화

### 법과 질서



조만형

“역사 속을 살아가는 어떤 조직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창조적 소수자(creative minority)의 효율적인 응전 여하에 있다.”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토인비 교수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은 결국 창조적 소수가 고갈된 조직이나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창조적 소수가 역사와 문명을 바꾼 대표적 사례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를 살펴 오늘날 사는 우리를 모두가 공감의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한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고,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나누는 가히 엄청난 역사(役事)였다. 이 운하 길이는 지중해의 포트사이드로부터 남쪽 수에즈 만까지 168km에 이르며, 유럽과 인도양 및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항로가 되었다.

한편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81.6km에 걸쳐 뻗어 있다. 수에즈

## 창조적 소수자들을 기다리며

운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인공수로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동쪽과 서쪽 해안 사이를 항해하는 배들은 한 곳으로 돌아가는 대신 파나마 운하를 이용함으로써 약 1만2800km의 항해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니 가히 역사(歷史)를 바꾼 역사(役事)요, 현대문명을 업그레이드시킨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운하를 건설한 이가 프랑스의 젊은 엔지니어 레셉스였다. 레셉스는 1859년부터 1869년에 걸쳐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이에 따라 그 후 1881년 파나마 운하 건설 시에도 책임자로 영입된 레셉스는 과거 그가 수에즈 운하 건설에서 성공한 방식으로 건설을 밀고 나가 9년 동안 굴착했다.

그러나 운하의 완공은 10분의 1에도 못미쳤고, 황열병과 말라리아로 건설 인원은 무수히 죽어갔으며 결국 1889년 파나마 운하 건설은 실패로 끝났다. 이와 같이 레셉스는 1차 응전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2차 응전에서는 실패했다.

이유는 수에즈 운하의 경우 굴착지역의 평균 높이는 해발 15m였지만 파나마의 경우 그것은 150m나 되었고, 수에즈 지역은 건조한 사막형 기후였지만 파나마

는 강우량이 3000mm에 달하는 열대우림 지역이었음에도 같은 공법을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던 것이다.

2차 응전에서도 성공을 거두려면 건설 방식을 바꿔야 했지만 이를 고려한 창의성은 발휘되지 못했다. 결국 1차 응전에 성공한 창조적 소수자라도 창의적 응전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2의 도전에 응전하여 다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특히 유로존 문제는 점점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미국발 경제 위기 문제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더니 이제 체감하는 실물경기 위기와 서민 경제는 가히 빈사상태라고 아우성이니 지금이야말로 창조적 소수의 탄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제 19대 국회의 임기 시작부터 문을 열지 못한 채 노동동 무임금이니 뭐니하는 겉가지 격의 소모적 논쟁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OECD국 중 국회 개원을 법에 의하지

않고 협상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하니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정치학 교과서에 사례로 등장할 포퓰리즘이 아닐까 한다. 대선 후보의 반열에 있거나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보도를 접해보면 이미 열두어 분이나 된다고 하니 인기로만 보면 우리 국민은 그 정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분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 중에는 ‘경제 민주화’나 ‘규제완화’ ‘상생’ 등과 같은 재탕 삼탕식의 진부한 것도 있지만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서민의 정치’, ‘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과 같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슬로건도 등장하는 걸 보니 말이다.

말 그대로 서민과 국민이 주인되어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기다려진다. 창조적 소수의 창의적 응전이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져서 모두가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다려본다. 우리 모두가 창조적 소수로 거듭나야겠다.

〈동신대 교수·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종교칼럼

## 세대 갈등의 결과물, 어른 불공경



윤빈호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거부당할 때 욕구불만을 느끼게 되며, 이런 두 개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충돌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세대갈등은 세대차이나 세대격차로 인하여 세대 간의 충돌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이 충돌은 격정적인 논쟁에서부터 물리적인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세대갈등은 현대사회가 만든 전유물은 아니다. 기원전 소크라테스도 “젊은이들은 사치

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나쁜 행동을 하며, 권위를 비웃고,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며, 일터에서 재잘거리길 좋아한다. 그들은 식사를 황급히 먹어치우고, 다리를 꼬고 앉으며 부모를 폭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갈등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연로하신 부모나 병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사는 형태를 뛰어넘어, 노인폭행, 부모살인 등의 각종 문제들이 고스란히 원형처럼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현상이다.

몇 년마다 새로운 부임지로 발령을 받고 그곳에 부임해서 신자들을 방문해보면 항상 소위된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대다

수는 자녀가 있으나 연락이 끊겨 외롭고 가난하게 살고 있으며, 더욱이 자녀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고령화로 인하여 젊은 노인들이 대거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세대와의 충돌과,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젊은 노인들을 편하게 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하며 천시하고 3D 업종으로 내모는 사회의 모습을 본다.

유교 문화권 안에서 효(孝)와 충(忠)은 전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개념이었다.

효(孝)라는 한자어는 연로한 부모(老)를 자식(子)이 업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은 어려서는 부모를 받들고 자라서는 봉양해야하며, 돌아가신 뒤에도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했으며, 제사를 모셔 부모의 은덕을 기렸던 유교적 규범을 잘 표현

한 단어로 생각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심이 자반이고, 이를 획득하려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이를 획득하려는 세대간 충돌이 발생하여 이런 충돌은 기존의 가치관과 사회규범도 무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처하던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스도교의 십계명중 4번째 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첫 계명인데 여기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표방하는 소중한 중요하고 가치다. 이런 가치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덜 조명 받고 교육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미봉양을 아니 문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풍양속 그리고 우리 민족의 끈끈한 효의 정신이 더욱 빛을 발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삼호성당 신부〉

## 기고

## 육도윤회(六道輪廻) 섭리를 인식시키자



전승현

대한민국이 날로 흥포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에서 20대 여성 시신을 훼손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위안촌(위안촌) 살인사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묻지마’ 살인까지 온갖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들스럼에서는 연일 사건 사고 소식뿐이 아니라 반박되는 삶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은 사회 어느 부분의 폭력보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 규범을 계승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도장이기 때문이다.

책을 보면 도종 문득 과거가 생각났다. 육도윤회(六道輪廻). 불교에서 중생이 생전에 한 행위에 따라서 저마다 가서 살게 된다는 일명 육계(六界-지옥도·아귀도·축생도·아수라도·인간도·천상도)를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여섯가지의 세상에 태어나 죽는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믿음이다.

윤회설(輪廻說)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려는 의도는 연속되는 삶에서 자업자득(自業自得)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다음 생애가 아니라 한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말한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그속에서 계속 윤회를 하듯 돌아가면서 그 전까지의 업-폭 실행, 악행이 아니더라도 그 전까지의 노력이나 행동들에 따라서 그뒤의 삶이 천도가 되기도 하고, 아귀도가 되기도 하는 건 아닐

까? 그리고 인생의 변곡점들이 사실은 죽고 사는 것처럼 윤회하여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사실은 이런 게 아닐까 보다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야 좀 더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곤 한다. 사람이라는 것이 기억을 통해서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업으로 벌을 받고, 반대로 기억도 안나는 일로 미래의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면... 이것이 한 인생 안에서 반복되는 육도윤회의 변형물인 게 아닐까? 상이나 벌의 형태로 말이다.

결국 내가 보기에는 한 생애에서 반복이 되는 순간들에 있어서 마치 윤회처럼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회가 반복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것이다. 위대한 도서관에서의 철학적 발견! 이것은 절대 책보기 귀찮아서 다른 생각한 건 아닐

을 모두 알 것이라 믿는다.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 복을 내놓으시오” 하면 복이 온다하는 걸 믿거나 바라는 건 아니다. 다만 노력이 돌아올 수 있는 분야, 공부라든가 선행 베풀기 등을 더 잘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해야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 미래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도록 말이다.

내 삶이 생애 밖에서 뿐만 아니라 이 생애 속에서도 윤회를 하는 것 같으니까.

현실로 돌아왔다. 우리네 학교가 폭력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학교의 붕괴는 곧 사회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게 뻔해서다.

나는 감히 주장한다. 희망찬 미래가 있는 학생들에게 육도윤회(六道輪廻)의 가치를 일깨워주자 함이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확장시킬 한 순간의 잘못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다 보면 선부른 행동이 어느 정도 제어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들어서 더욱 그렇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의 존재는 우리의 꿈이요, 이상일까?

〈전리남도체육회 사무처장〉

## 우후죽순 인터넷 ‘맞짱 카페’ 철저히 단속 폐쇄시켜야

인터넷에 들어가면 ‘맞짱 카페’라는 게 있다. 말부터가 벌써 심상찮은 분위기를 풍기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맞짱’이라는 단어가 이미 한판 붙는다는 의미가 때문이다.

이건 요즘 인터넷에서 생형되고 있는 싸움 카페인데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입해 싸움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모처에서 만나 결투를 벌이기도 한다니 정말 요즘 아이들 놀람과 무섭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조폭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아이들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반성이 필요하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소위 맞짱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싸움을 걸거나 “내가 세네, 네가 세네” 하면서 티격태격하다가 실제로 한판 붙자고 대화가 오간다. 그리고 싸움 날짜와 장소를 정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 싸움을 확인하러 곧터나 공사장 같은 데로 모여 만나는 것이다.

여기에 모인 아이들은 주변에서 중계하듯 동영상 촬영을 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그 자리서 일면식도 없던 두 남학생이 만나 격렬하게 주먹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나 싸우는 장면은 아이들의 디카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고스란히 카페에 올려져 전국 방방곡곡에 녹화중계되고 온 나라 아이들이 이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카페에는 각종 싸움 기술 동영상과 격투기 장면이 가득하다. 놀라운 일인 이런 카페의 운영자가 10대인데다 회원 대부분이 청소년이지만 카페가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카페에는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 격투 경기를 보다가 이런 카페에 가입했다”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만도 한 것이 이런 카페를 발견하고 싸움 일지까지 본인들이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 글도 있다.

이런 폭력을 보고 배우고 즐기며 퍼뜨리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할 일은 무엇일까. 아니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폭을 꿈꾸며 다니는 것 아닌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카페를 철저히 삭제하고 폐쇄해야 할 것이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 시설

## 택시기사 파업 그들의 요구 일리가 있다

전국의 택시업계가 20일 LPG 가격 안정화 등 5개 항의 이행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광주지역 택시기사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업체가 사납금을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파업에 들어간 지역별 택시 운행률을 보더라도 대구·울산·대전이 각각 운행률 전편 중단했고 서울 15.7%, 인천 1.4% 등 전국 평균이 19.5%에 그친 데 반해 광주는 55.6%로, 부산의 9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택시업계는 현재 전정부지로 치솟는 연료비와 전체 택시의 20%에 달하는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지역 LPG 가격의 경우 1l 당 1107.40원으로 지난 2010년 11월의 891.27원에 비해 24%나 올랐다. 하지만 요금은 4년째 동결된 상태다.

광주지역 택시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모두 8219대에 이른다. 시민 178명 당 1대꼴로, 인천·울산의 197명당 1대 수준과 비교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중장기적인 수요 판단 없이 무턱대고 증차해 준 게 공급과잉으로 이어진 것이다.

승객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는데도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기형적인 운영체제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악화될로다. 완전월급제는 말뿐이고,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살인 주행’을 하고 있다. 요금이 정상되더라도 곧바로 사납금이 상향 조정돼 택시기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악순환도 연출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LPG 가격 안정과 택시 공급과잉 해소, 사납금 개선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바란다.

## 박람회 ‘저급’ 관람 매너 나라 망신 아닌가

여수박람회 일부 관람객들이 관람 매너를 흐리고 있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숲에 취해 새치기를 하고 여성 운영요원을 성추행하는 등 하루 수백~수천 건의 관람 추태 사례가 접수돼 조지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조지위가 발표한 ‘관람객 서비스 시설 추태 사례’에 따르면 새치기, 욕설, 폭력, 성추행 등의 사례가 많게는 하루 200여 건이나 접수되고 있다. 가장 많은 추태는 새치기로 주중 평균 710건, 주말 810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장애인 시능을 하며 장애인 우선 입장 대기열에 서는가 하면 먼저 들어간 일행이 있다며 슬쩍 끼어 들어가기 일쑤라고 한다.

조지위 관계자와 운영위원들에 대한 욕설과 폭력도 다반사다. 대기시간이 많아지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운영요원이 부상당할 정도의 폭력도 휘두른다. 운영요원에게 병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음주폭행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뿐만이 아니다.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적 농담을 하는 취격도 많다. “노래방 도우미를 해달라. 꺼안고 사진을 찍자” 등 꼴불견 사례도 다양하다. 심지어 아쿠아리움 수조에서 물고기를 훔쳐 비닐 봉지에 숨겨 나가다 적발되는 경우까지 있다. 관람객의 매너가 이 정도로 저급하다니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음주 추태는 박람회장내 점포 주인들의 상흔과 무관치 않다. 박람회장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박람회장 식당·마트에선 버젓이 술을 팔고 있어 음주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위상을 높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유치했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축제에 이런 오점을 남겨 영요원이 부상당할 정도의 폭력도 휘두르는 등 음주폭행 사례도 부지기수다.

## 無等鼓

1999년 5월 24일 장흥군 부산면 일대에는 김태정 법무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다. 호남 출신 첫 법무장관을 배출했다는 고창사람들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었다. 김태정씨는 부산시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고창이 장흥군 부산면이고, 이곳에 선산이 있는데다 본인은 여수와 광주에서 중·고교를 나와 사실상 호남인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법무장관 취임 첫날 웃로비 사건이 터졌다.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승영 회장이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시절 아내 영희씨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 법무장관은 취임 15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특별감사제가 도입됐다. 특검 조사로 영희씨가 1380만 원짜리 호피 무늬 반코트를 비롯해 앙드레 김의 고급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검에 앞서 열린 국회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앙드레 김이 ‘김보남’이란 분명을 밝혀 화제가 됐다. 당시 세간에서는 청문회가 웃로비 실체는 확인하지 못하고 앙드레 김의 본명만 밝혔다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되기도 했다.

또 다시 웃로비 의혹이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에는 부산시교육감이 사실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광주 유명 의상실의 수와 광주에서 중·고교를 나와 사실상 호남인맥으로 분류된다.

의상실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다녀갈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웃로비 사건이 터지면 세간의 관심은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 의상실이 어떤 곳일까...”라는 데 쏠리는 경향이 있다. 앙드레 김은 생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희씨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씨 웃로비 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역설적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적이 있다.

이번 웃로비 사건도 앙드레 김 효과로 벌이 공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이 의상실의 메세나 활동도 조병 받았으면 좋겠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滄樂</b> 편집국장 <b>曹庚完</b>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린책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출팀 227-9600	독자서비스팀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